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공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빌립보 1:21)

대한연회소속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2 성탄 메시지 - 아기 예수와 박사들

12월 25일(수) 성탄축하예배, 오전 9시(1부) · 오전 11시(2부)
제직들은 오전 9시(1부)예배에 참석 바람

“이에 해돋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더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얻어 황금과 향화와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해돋이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마 2:7~12)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탐구했고, 그 정조를 기다렸으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다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랜 여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가초하고 있었습니 다. 그들의 어려움, 여행, 겸손함, 소중한 예물, 그리고 진정한 경배는 그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박사들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박사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었다고 추측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동쪽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수기 6’에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별과 彗星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만(민 24:17), 도대체 박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항 세계로 흩어지거나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분산되거나 흩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헬라적 용어)였기 때문에,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진리를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구나 그들이 도착한 성화한 시간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 즉시 도착하였을 수도 있고, 해돋이 두 살 미만의 유대 사이아인들을 모두 죽이려하고 명령을 내린 사건을 생각하면, 박사들이 몇 년 뒤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박사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를 찾고자 한 것일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밝히리라”(렘 33:3).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다녔지만, 가만히 예수는 왕궁에 없었습니 다(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 유에 계셨습니 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앓을 항하여 험한 여행에게 나왔습니 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에게 이르렀고, 그가 처한 초자연 환경을 알고도 영광과 찬송을 들었습니 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굶어 앓고있고,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올렸습니 다. 진실로 성탄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박사들과 같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성탄절에 자신들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왕이 호화스러운 성채(城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집에 마루고 있고, 그 아기의 부모가 경장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에게 무릎꿇고 엎드려 경배하시겠습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곧잘 보잘 것 없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구약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습니 다. 그들의 선물은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금을 드리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자는 약간의 금으로 만들었고, 제사복을 얻어보면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천국의 집과 가리들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박사들은 유창(流暢)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의해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약(藥料)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계를 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우 비싼 약입니다. 초대코루몬을 금을 그리스도도의 신성으로, 유창을 그분의 순결함으로, 그리고 몰약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해했습니 다. 진실로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 다.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를 겸손하게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예수를 찾아 나서는 믿음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행의 위험과 지속적으로 다 나아 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습니 다. 성경의 순언도 경험하였을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별을 따라서,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께서 누우신 곳 에 왔고, 여전히 그분을 믿었습니 다. 그리고 그들은 행방잡에 사로잡혀 주를 향해 엎드려야 경배드라며,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 다. 그리고 그분아니께 그들은 하나님께 하듯하듯 되돌아가서 만고 경배하였을 때, 먼 길로 여행하러 한테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 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겸손히 주를 찾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것들로 흥분하지 마시고, 성경의 것들을 감동하셔서, 보물상자를 열어 아기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보배를 찾고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그분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속함과 구원과 영적인 기쁨을 배부시 것입니다.

(성탄축하예배 메시지 중에서)

지·난·수·요·예·배·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마 4:17~23)

서론

“교회는 그리스도론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순결한 사랑을 받았으리(렘 52), 본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정의가 된다. 진실로 교회는 그리스도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매(골 1:6),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마 16:18), 세상에 만민하는 죄와 죄악하여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곳이다(마 18:17~18).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외적이다. 한도.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오셨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다(마 11:4~5).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고치면서 다시는 그들과 같이 있는 천국의 나라를 실현함으로써 보여 주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7, 23). 진실로 주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3). 이 그 뿐 아니라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마 9:1~2).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 역사의 끝이요 새 계가 열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가르치셨다(마 24:14). 마침내 성가에게 올라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뒤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 1:3).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도는, 그 때를 위하여 세례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마 3:1~2), 한 때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 사이에 의논하고 동원하게 선포되셨다(행 20:28, 28:23). 그렇지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작 주님은 오신 목적을 바꾸어 버렸다. 그분이 본받으려 자신이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마 4:3), 거짓된 교회는 쉽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자신들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모든 역사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역사를 신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명하셨다(창 1:26~28).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다. 아니 죄악이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끌어내려서 인간 스스로 세상의 타락된 역사를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러하여 인간은 철저하게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여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로 5:22), 한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 그리스도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사 53:4) 시작되셨다(골 5:14). 이러한 세로로 주님의 역사 속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브리움을 부르셨고(창 12:3), 다윗을 위해 앉히셨다(삼하 7:16). 마침내 육신적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눅 1:32~3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로 5:35).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리(골 1:27). 주님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신대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길 기도하며 할 절대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천국의 대사

천국은 우리가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서 빛이(골 1:28, 20:32).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며(골 4:4),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마 28:18) 되었고, 천국의 권력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마 11:12) 모든 성과 촌을 다스리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천국의 대사들이다.

The Israelites spent forty years with God in the desert wilderness. During that time, God provided everything they needed. He gave them food, shelter, and protection. He loved and cared for them in all ways! Yet these chosen people did not hold God in the highest regard. They were like dust, "a wind that passes and does not return", because they perceived Him as limited. God expressed, exercised and displayed His sovereignty in their lives, but they continually rebelled and disobeyed. God demonstrated His rule and authority over all things in front of them, but they still sinned. God verified His control over the entire universe to them, but they didn't believe. They didn't "remember His power, the day when He redeemed them" from Egypt. They didn't enter the Promised Land because they limited God.

As God's children, we often times make God a limited God instead of a sovereign God. We know H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We know He sacrificed His beautiful Son to save the world. Yet believers, not non-believers, with all their experience still ignore His sovereignty.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who have displayed Your splendor above the heavens"(Ps. 8:1)! How do you recognize God in your life? Is He really a sovereign God? Does He really have unlimited power and control? How do you treat Him? The Bible tells us, "For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 and that our Lord is above all gods. Whatever the Lord pleases, He does, in heaven and in earth, in the seas and in all deeps"(Ps. 135:6). God is unlimited because He has the power to do whatever He wants. His sovereignty doesn't depend on you, but your salvation absolutely depends on His sovereignty. Believers have the sweet assurance, the amazing love of a sovereign God. As such, let's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recognizing and honoring God's sovereignty.

The Bible tells us God is holy.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Is. 6:3). The word holy means separate from all that is sinful and immoral. Do you feel God's holiness in your life? Do you really worship Him? Too many believers make their bodies, friends, education, work, money, or reputation more holy. We need cleansing from a holy God. The apostle John saw the Lamb of God and heard the angels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the almighty,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Rv. 4:8). These angels spoke these words "day and night" without ceasing! Do you have just one percent of this kind of faith? God directly told Moses,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sons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Lv. 19:2). God is holy! Is your God holy and eternal?

God is omnipresent. He is present everywhere. There's nowhere in the universe that lies beyond the care of God. David totally recognized God's omnipresence,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Or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ascend to heaven,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Sheol, behold, You are there.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if I

YOUR GOD

(Psalm 78:38-42)

But He, being compassionate, forgave their iniquity and did not destroy them; and often He restrained His anger and did not arouse all His wrath. Thus He remembered that they were but flesh, a wind that passes and does not return. How often they rebelled against Him in the wilderness and grieved Him in the desert! Again and again they tempted God, and pained the Holy One of Israel. They did not remember His power, the day when He redeemed them from the adversary"

dwelt in the remotest part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lead me, and Your right hand will lay hold of me"(Ps. 139:7-10). Do you believe God is everywhere? Philosophers like to ask believers. "Where is God?" Now, I know that philosophers really love to think. So, my question to them is, "Where is He not?" The Lord declares in Jeremiah 23:24, "Can a man hide himself in hiding places so I do not see him? Do I not fi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men. God is everywhere! Is your God everywhere?

God is omniscient. He has complete and perfect knowledge of all things. He is endowed with all wisdom, and is thus aware of our thoughts, deeds, needs, and anxieties. He knows our past, present, and future. He knows our joys and sorrows,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s nothing He doesn't know. I don't think many people truly believe that God is omniscient. That's why they limit God. David completely acknowledged God's omniscience,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when I sit down and when I rise up; You understand my thought from afar. You scrutinize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e intimately acquainted with all my ways. Even before there is a word on my tongue, behold, O Lord, You know it all. You have enclosed me behind and before, and laid Your hand upon m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t is too high, I cannot attain to it"(Ps. 139:1-6). God knows all things. Is your God all knowing?

God is omnipotent. He has infinite power. He is almighty. There is nothing too hard for God. Jeremiah declared, "Ah lord God! Behold, You hav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by Your great power and by Your outstretched arm!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You"(Jer. 32:17). God is all powerful! Is your God all powerful?

In every way that God exists, He exists without limit, that is, in perfection. God is eternal, without beginning or end; all-powerful; all-knowing; all loving; long suffering; present everywhere at all times; unlimited in creative power. Who can impose limits on a sovereign, holy, omnipresent, omniscient, and omnipotent God? No one can limit God! So why is your God limited? Over and over the Israelites "tempted God, and pained the Holy One of Israel"(v. 41). Again and again they ignored God because of their self-will. Listen up! The way you treat God determines the way you view God. If you continually ignore, rebel, and sin against Him, then you are worshipping a limited God, not a sovereign God. The Israelites were a stiff-necked and obstinate group of believers. They made their God limited. Sinful humans always ignore God, always reject God, always test God because they think they're great. People become self-centered when they have doubting hearts. Selfishness, stubbornness, and all sinfulness limits God. God is limited when we tie ourselves to self. Israel was tied to their remembrance of Egypt. They refused to keep God's covenant. They sinned more and more and provoked God to the point where He wanted to destroy them.

My dear friend, you are a child of God because of His grace. Today is the last Sunday of the year 2022. You should finalize your faith today. I know you are a believer. I know you want to worship the Most High God, even at this very moment. I sincerely want you to ask yourself, "How do I treat God?" Think about it. What kind of God do you worship?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is Son died for you. He wants to make you His child. Do you limit your God? How much do you really believe in Him? The problem is that most people have no faith, and thus limit God. The Bible tells u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Phil. 4:6). Do you understand? You just trust and believe in God with all your heart and leave everything else to Him.

Open your Bible to Hebrews 3:15-19. Here we can apply Israel's experience to the dangers facing us. Their unbelief brought God's curse upon them. They fell down in the wilderness because they limited God. My friend, a limited God signifies unbelief! This earth is our wilderness. I don't want you to fall down because of your self-will. I don't want you to perish because you limit God. If you believe 100% in Him, you will be His child and go to heaven.

At this last moment, just bow your head and confess your sin. Let us pray, "Lord forgive me. I want to be an undoubting believer. Please cleanse me and help me to deny myself. make your own things in me. make me a new creature. please help me Lord. I want to deny myself, take my cross, and follow You only by faith each step of the way. Thank you for Your Word. You are a sovereign God. Please accept my love. Amen." 🙏

어리석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곳, 그리고 피난처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경심으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믿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유한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속속 들어오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고 행하면서 밝혀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 앞에서 모든 것을 위해 대신 그의 통치와 권위를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우물을 통째로 함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로써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만큼 간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와 주의 이름이 오 땅에 어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주의 영광을 행하 위해 두셨나이다"(시 8:1).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주께서 정말 만능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가지신 분이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뭇 것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시 135:~6).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무엇든지 행하시기를 성은 행하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은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나,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감미로운 확신과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시 63).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죄와 부도덕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십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욕, 친구들, 교육, 직업, 돈, 또는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결하게 엮길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온 천지를 이여 천지에 채셨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자입니다"(계 4:8). 이 천들은 멈추지 않고 발보느만 뻗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단지 1퍼센트라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레 19:2).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십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주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행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제(觀制)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

나의 하나님

(시 78:38~42)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욕쟁이라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김 성 관 목사

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 어디나 내가 선택 날개를 저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 계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7~10).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철학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철학자들이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어디입니까?" 주께서 예레미야 23:2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도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지혜를 소유하셨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필요와 열망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강함과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지(全知)하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알고 일러심을 아시며 감찰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 나의 길과 나는 것을 감찰하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신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부를 드러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시 139:1~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全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곧 능과 다스릴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렘 32:17).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제한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존재하시며, 완전한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와 광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전능(全能)하시고, 전지(全知)하시며, 완전한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모든 때에 모든 곳에 임하시니고, 무한한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가 절대

적인 주권을 소유하시고 거역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도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하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시켰습니다(시 78).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선배를 감을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라고 간주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함하여 무시하고 거역하며 죄를 짓는다면, 이는 유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고 잘못도 있었으며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 고집이 세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함,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자신을 속박할 때,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에 대한 기억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약을 지는 것을 거절하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욱더 커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은 언제든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2002년도 마지막 주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믿음의 결말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순간과 어디서나 가장 높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질문하는 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녀로 삼고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제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의뢰하고 간구하느니라 그릇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골 4:2).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모든 것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적인 믿음이 필요함

성경을 열고 히브리서 3장15절~19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적이 다가오는 불신의 가운데서 대하여 이스라엘의 경험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자신 위에 임하는 자를 죽이는 재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할 만큼, 광야에서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자신의 의지로 발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지 말며 이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 매트되 완전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될 것이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숙이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용서하시 주소서, 의심하여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내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도우소서, 내로 하여금 주의 소유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진리로 자비를 깨뜨리고 주께서 주신 선지자를 지고 내 결백을 진실로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드려옵나니 주께서는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사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원 정 (11교구 불가리아 팀원)



인도
대학부 단기선교팀 (12월 28일~1월 7일)
통크, 토다, 벵화, 드롤 지역

- 1. 단기선교단원들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무장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게 되길.
- 2.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주권하시어 최선을 다하게.
- 3.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현재 사역 중인 선교단

부서	지역지	날 짜
2교구	스리랑카	12월 17일 12월 27일
에바다부	카자흐스탄	12월 17일 12월 24일
9교구	루마니아	12월 18일 12월 27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5교구 우즈베키스탄, 6교구 스리랑카, 12교구 카자흐스탄, 13교구 인도, 15교구 우즈베키스탄, 장년1부 인도 등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팀들이 모두 무사히 지난 주에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 내려지도록 더욱 기도해 힘쓰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내게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불가리아 국민의 70%가 불가리아 정교인이다.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다급한 문제였다. "이수스 우무와 자라디바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모르고 있었고 나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과 표정이 변화하였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고 계신 증거였다. 나는 작고 약하여 나로 인한 그들이 변화는 믿을 수 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내 입술에 영혼을 위한 기도를 담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선교단원들의 눈으로 본, 우리가 밝은 불가리아 온 땅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였다. 전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었다. 다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의 말씀이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했다. 바울의 이 적극적인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전도하였다. 그 결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

바울은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말로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구약의 예언된 메시야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명했다. 구약을 통해 메시야가 고난 받으셔야만 했던 점을 설명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제시했다. 복음자체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랑거리들을 포기하고 진실과 겸손과 회생으로 섬겼다.

바울의 회생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론 믿음이었다. 전도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낸 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였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접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땀 흘려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 2

목숨까지 복음과 함께 주려고 할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면 자신의 구역에 침해 받은 사단이 그냥 있지 않는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시험했다.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여 분열공작을 썼으며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 질 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공작에 대비해야한다.

사단의 역사에 대비해야한다

바울은 기도했다. 핍박과 유혹과 우상숭배와 죄와 패락으로 마귀가 가장을 하고 시험하고 도전함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바울은 전리를 가르쳤다. 고난과 박해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사단이 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장을 하고 시기하고 시험해 오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싸울 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였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또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파해 나갔다.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자.

(선교위원회지도 이종철 목사)

감사

박승산 (집사, 청년1부 교사)

결혼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주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혼하면 가정에 배, 말씀독상, 기도생활을 충실히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 계획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습니다. 게으름과 습관화 되어버린 태만함, 육체적인 정욕, 나쁜 습관들이 옹고리에 가지처럼 켜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숨겨진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한 가정을 주님 보기에 합당한 가정, 사람들 보기에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가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고 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부족하고 약하며 병들어 있다는 것과 이런 죄인의 계획은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야 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자 모든 일들이 명화해 되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아내와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완수할 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하는 구제의 의미

성탄절이 되면 여기 저기서 구제의 마함이 분다. 고아원과 양로원, 재활 의료원 등에 선물꾸러미들이 넘쳐난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따뜻하게 대우하며 물질은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신 행적을 본받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성탄절에 또 무엇을 하는가?

성탄절에만 구제를 하며 평소에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성탄절에 술집이 흥행하는 것도 비판받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실감할 것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중성이나 성탄절을 이용한 방법은 어찌고 죄의 모양을 두르고 있어 신령한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구제를 통해 예수님의 본 사역을 숨겨버린 사단의 꾀략은 절묘하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불린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성탄절의 구제는 그분을 어떻게 전파시켰는가? 구제가 그분의 최고의 사역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성탄절의 구제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배려할 먹인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과부나 어린 아이를 사랑한 자로만 인식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기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생을 사해주시기 위함이다. 믿음을 주어, 주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성탄절의 구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영혼에서 땅으로 돌려놓았다. 예수님이 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한 영혼에게 복을 전할 적이 있는가? 들은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구제주임을 전하며 믿을 것을 강권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밝힌 것이다. 구제를 하되 그것 역시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지회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후 9:13).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아가 보자. 그리고 성탄절을 계기로 매일을 그리 살자. 우리는 성도다. 세상 장미여 선지자다. 매 해 구제하던 적이 있었지만 그 곳에도 행단 가져가지 않고 복음을 함께 가져가자. 성탄 카데도 복음을 전하 게 보내자, 그리고 성도를 구제하며, 성도에 게 카드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복을 전할 것을 권면하자. (편집실)

그리스도의 편지

안복남 (청년1부)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생각하고 전도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못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여 그 기쁨을 같이 맛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특별한 날 뿐 아니라 나의 일상과 삶 속에서 깊숙이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고 못 사람이 아니고 있는 바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고후 3:2-3). 이 때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교인 자체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섬기는 자들이었나 봅니다.

성도는 사랑에서 주의 생애와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추천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삶 자체를 추천장으로 내세울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될 수 있는것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나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의 죽을 준비하기

죽음을 위한 탄생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흥분합니다. 구제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흥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나날에 탄생에서부터 죽음을 생각하느냐 발문하지 모르지만 실로 주님은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사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속죄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분만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라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 3:10).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골 1:11). 성도를 또한 그분처럼 죽음을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쁜 것과 행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에서도 탄생과 그분의 행위들, 즉 병고침과 구제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행위에서 죽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많은 존경받는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소망의 완수는 죽음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분은 행위를 보람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으며, 당시의 주도권을 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행위에서 죽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스리는 것에서 주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으로, 속 사는 것에서 죽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봅시다. 아니, 성도도 매 순간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봅시다. 자신의 죽음의 때에 다스리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님을 의존하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도권을 쥐는 자로 있을 것인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의 행위를 남긴 자로 죽을 것인가, 주님의 이름과 구원을 함께 남긴 자로 죽을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권오섭 기자)

구역장 영성훈련

천사의 출현 (눅 17:11-19)

14교구 이유진 목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섭하셨다. 그런데 말하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침묵하셨을까? 왜 간섭을 잠시 중단하신 것일까? 그것은 가장 적합한 때,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탄생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침묵의 400년이 흐르고, 하나님은 출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간섭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으로,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합당해야 했다. 인류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던 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준비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의 잉태 자체뿐 아니라, 잉태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천사가 출현하였다. '예수'라는 이름도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다. 이 얼마나 완벽한 간섭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으며,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여져 왔고, 특히 이사야는 '차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사 7:14)이라고 구체적으로 700년 후의 상황을 예언하기까지 했다.

이 간섭은 실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로울 것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신을 주었으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이 사방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 했고, 사람들이 그가 구세주임을 믿게 했다. 그러나 이 간섭은 수난을 동반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디어야 했고 요셉은 부정하다고 인식된 아내를 맞이해야 했으며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여서 도망 다니야 했다. 성장한 예수님은 수난의 삶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을 당하면서 또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지 않았으며 기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기뻐하는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원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서는 축복의 간섭만을 원하고 수난의 간섭, 회개의 간섭은 불편해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간섭 중 나의 판단이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는 그 간섭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은 결단하고 기쁘게 마리아를 맞이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계시는가? 피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간섭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고 순종하자.

(권오영 기자)

✦ 양호실

6교구 우기득 성도(남52세) 해당암 말기로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통증이 완화된

되도록,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숙정 집사(여59세) 간 이식 수술 예정이었으나, 이식받을 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복수가 차서 교통 중인데 빨리 간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중업 성도(여48세) 신장이 눌러 오른쪽 다리 전체가 저려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능 검사 후 수술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치료와 수술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강충열 집사(남50세) 급성상선장성신축성염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최근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아직도 몸이 마비된 상태인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탈피할 없으니, 일종의 해자가 불가능한 계약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강요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나중에도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억지로 계속 믿게끔 강요하시는 하나님도 아닐 것입니다. 타락은 가능하니까. 우리는 ‘가뭇 유다’를, 믿음을 관하여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알고 있습니다. 배교는 언제나 실수로 추락하게 되나 모르고 빠져드는 것과는 달리, 지극적이고 고의적인 결단에 의한 거절행위입니다. 우리는 극성스럽게 믿다가 어느 날 의심으로 치닫는 변덕쟁이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는 악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악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죄를 짓고, 의심 많고, 한결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됨은 내 편에서 의무 조항을 파기했다가 해서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그리실 수 있는 성격의 형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을 세우시고 결과를 보충하시는 연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탄과 그 심복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줄 끝에 달린 철도 위를 걷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운이 좋으면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다녔지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시편 125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시 125:5).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우월한 감성이나 고난당한 사실, 또는 타락의 가능성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는 증거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을 상상하지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떨러지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까(마 6:25, 31, 34). 신앙 도전을 여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를 향한 동반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비바람과 눈보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위협거리가 못됩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서름과 미련한 결음마다 함께 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는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히 12:2).

(염혜련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50장 “큰 영화로신 주”

웨일즈의 벤자민 프랜시스(B. Francis, 1734~1799)목사가 작사하고, 루이스 에드슨(L. Edson, 1748~1820)이 작곡한 이 찬송가는 구약시대의 성전예배 경경을 연상시킨다. 이 찬송은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향기로운 제물을 향유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도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절: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섬으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 2절: 이 백성 기도하고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번뇌소서
주께 우리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 3절: 또 우리 지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들이 곧내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 4절: 주 믿는 만민이 찬 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매 음표마다 절제된 힘과 위엄을 갖고 아주 경건하게 찬송합니다.

(한양위원회)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남 경 옥 성도를 소개합니다



현재 선교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스스로 나왔는데, 중현 교회를 택한 이유는 친구가 다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조용하고 거룩한 예배에 매우 큰 은혜를 받았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평생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집회에서는 기초적인 말씀을 충실하게 잘 가르쳐주어서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가족부 수료 후에는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한숙정 후원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강 민 철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날에 산타클로스가 자신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갖다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하얀 눈이 내리는 세상을 하얗게 덮어 주었으면 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낮고 낮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겔로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시며 조용히 유대방 베헤렐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나눔의 소식이었습니다(눅 2:11).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주는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양말 속의 선물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연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보다는 성탄 이브에 함박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더욱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장 태 은 (중동1부교사)

"영유아 12월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언니는 그것도 몰라? 크리스마스잖아."

"우와, 우리 영유 똑똑하구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응,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한 아이들에게 선물을주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무슨 날이길래 산타가 선물줄까?"

"몰라, 주니까 받는 날이지 뭐"

산타의 선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을 가리 버리다니... 예수님 정말 섭섭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며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섭섭하실 일이 그것뿐인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하지 않는다. 머리로 믿음을 알면서도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믿음을 없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항상 알면서도 '아,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내가 너무 돈이 없었어' 하며 이기적인 내 모습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돈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사는 나를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여,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께 순종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너희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5-46).



믿음의 학교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서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을 남김없이 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삼상 15:3). 하나님의 심판은 남달려서, 먹 먹는 아이, 심지어 짐승까지 적용됩니다. 일말의 동정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부분적으로만 이행합니다(8:9절). 사울은 일반 백성들과 짐승의 열중한 것들은 명명대로 모두 전멸하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우수하고 잘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나요? 사울이 사무엘의 제사권을 침범한 사건(13:9)에 이어, 아말렉 전멸사건에서도 하나님과 뜻을 이긴 고지적인 행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하여 사울을 만나려고 길가로 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13절). 참으로 뻔뻔스러운 모습이지요. 사울의 '순종'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은 전멸하지 않은 양과 소의 소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사울은 가축한 제사 의식을 빌미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죄의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울의 의식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신의 죄를 순순히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회개를 선택 할 수 없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오스왈드 캄벌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학의 기쁨보다 나으니"(22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의미를 주십니다. 외적 행위보다는 내적 마음의 순종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

음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영(靈)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마음과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제사로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을 드릴뿐이지만, 순종으로는 인간 자신을 바친다. 그러므로 순종이

야말로 영적인 제사인 것이다'(Keil).

그렇다고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행위 속에는 반드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 찬송, 기도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태도를 쓰고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을 만한 가중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임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날카로운 심문에 의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쩔수 없이 범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요(24절). 사울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 왕권의 한계요, 비극이었지요. 어느 정도인 하나님께로서 세우지 않은 지도자는 사람에게 한계를 두고서 연연해가 마련이니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느냐가 실로 중요하지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罪)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옵나"(시 51:4).

(권형임 기자)



